

순천 진안흑돼지연탄구이



흑돼지 한쌈



짜글이



연탄불

오겹살·목살 두툼하고 상품 좋아
껍데기·순두부찌개 등 서비스 굿
짜글이 중독성 강해...사리 필수



오겹살

육즙 가득 쫄깃한 맛...소시지는 '덤'

새해가 밝았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빛 축제를 했다. 발길을 그 곳으로 옮겼다.

'별빛 산책 꿈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밤을 환하게 수 놓고 있다. 방역지침을 꼭 준수하고 한 번쯤 가 볼 만하다.

빛 축제는 캄캄해져야 볼 수 있으니 저녁을 먹고 가는 걸 추천한다. 산책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구경하면 더 좋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조금만 가면 순천 아랫장이다. 아랫장은 맛집도 워낙 많고 근동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유명하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 흑돼지가 눈에 띄었다. 연탄구이라는 점도 추운 겨울 맛있게 더 이끌었다.

이곳은 진안흑돼지연탄구이. 전북 진안은 흑돼지 상품 가치가 높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인지 상호부터 믿음직스러웠다. 오겹살과 목살을 주문했다.

고기가 나오기 전 연탄을 넣어주고 불판과 함께 나온 기본 찬들이 자리를 잡았다.

가짓수도 많고 하나씩 다 맛봤다. 주인장 솜씨가 실로 대단하다. 반찬 하나하나가 경쟁이 심했다. 특히 순두부찌개가 으뜸이었다. 뭔가 흔한 맛인 듯 흔하지 않은 맛인데 중독성 갑이다. 기본 탕인데 달걀까지 들어있더니 예

상외다.

찌개만 있어도 밥 한 공기씩은 뚝딱일 것 같았다.

뒤이어 나온 고기는 굉장히 두툼했다. 맛보기 '껍데기'와 소시지도 함께 나온다. 서비스가 엄지 척이다.

여기 고기는 도통하니 탱탱해서 씹는 맛이 대박이다. 살코기가 더 많았지만, 비계하고 비율이 좋아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말치약젓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기름장, 쌈장, 콩가루까지 궁합이 최고다.

고기는 주인장이 타지 않게 잘 구워준 덕분에 타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오겹살은 껍질이 붙어선 지 쫄깃함이 살아있었다. 목살은 어마어마한 두께가 스테이크를 방불케 했다. 돼지고기지만 입에서 사르르 녹고, 입안에서 육즙 폭죽이 터져 놀랐다.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도 할 수 있는 '짜글이'를 후식으로 시켰다. 고기보다 먹으면 연탄불 위에 짜글이를 올려서 먹으면 된다.

짜글이는 계속 보글보글 끓여서 졸여 먹는 느낌으로 먹어야 제 맛이다. 불을 켜고 고기를 하나둘 집어먹다 보면 국물이 졸아들면서 더욱 맛있어진다.

1인분을 시켰는데도 얼마나 양이 푸짐하던지 먹어도

먹어도 끝나지 않는 고기들. 짜글이는 찜 찜 먹는 김치찌개를 연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고기양에 비해 국물이 조금 적고 매콤한 양념이 고기에 잘 배었다. 두루치기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닌 것이 참 묘하다. 중독됐다.

고기가 어찌나 실한지 껍질까지 붙어있어 꼬들꼬들함도 살아있고 잡냄새도 잘 잡아 고소 담백, 매콤, 모든 맛을 다 가졌다.

국물을 즐기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즐겼다면 사리를 넣어야 마무리가 완벽하다. 걸쭉해진 국물과 라면 사리의 조화는 금상첨화다. 먹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의 맛을 자랑한다.

두부도 으개서 밥과 함께 섞었다. '아역시이맛'이라는 생각뿐이다. 밥이 술술 넘어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음식 하나 놓칠 수 없었던 맛집이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맛집이었다. 손님이 아주 많았다. 직접 먹어보니 고기도 싱싱하고 음식들이 다 맛이 좋아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순천에 많은 고깃집 맛집들이 있지만 숨어있던 곳을 찾은 것 같은 뿌듯함. 흔히 먹는 돼지고기지만 이곳만의 특별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적극 추천한다. /이주연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